

517 담전 5장, 목회자의 태도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대하설교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설교요약본 289쪽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누가복음 설교요약본 289쪽부터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디모데전서 5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5장을 집에서 미리 읽어온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을 미리 읽는 습관은 주일을 준비하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장려되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1-2,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5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다.

5장1절上: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

→ 목회를 하다보면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 목회자가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의 말씀을 범하는 과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가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 마치 부모에게 하듯 권면해야 함을 바울은 권고한다.

5장1下-2절: 1下. ...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 역시 우리 목회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바울의 사도적 권면이다.

5:3-16, 참 과부와 관련된 지침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대표적인 빈곤층이었고 사회적 약자였다. 여기서 ‘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를 의미한다.

5장3절: (교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도와주라)**

→ 바울 당시에는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했으므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부양을 책임져 줄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동정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이었다. 이러한 참 과부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은 당시 교회가 마땅히 해야하는 대표적인 구제 사역이었다.

5장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 이처럼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가족이 있다면 참 과부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과부들은 가족들이 율법에 따라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5장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없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 이런 여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5장6절: (그러나) 향락(방탕)을 좋아하는 자(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 강조표시하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날에도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특별히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당시 향락과 방탕을 좋아하는 과부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앞 절과 대비된 과부의 유형을 말한다. 참 과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부도덕한 부류의 과부들이 있었다. 이들은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즐기는, 추구하는 과부를 가리킨다. 이러한 과부가 옳지 못한 이유는, 재혼이라는 성경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 방탕과 쾌락을 탐닉했기 때문이다.

5장7절: 네가 또한 이것을(3-6절의 교훈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5장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자기 가족 중에 있는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이처럼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진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정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문제와 관련하여 과부를 어머니와 할머니로 두고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교훈할 내용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4절 곧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 과부와 관련 있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데, 4절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거론하고 있다면, 8절은 강한 어조를 동반하여 부정적인 방식으로 거론하고 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과부인 할머니나 어머니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반드시 보살피고 도와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제 살펴볼 9절을 보면, 바울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여성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바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을 감안할 때 오늘날의 60세보다 더 연로한 나이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장9절: (참) 과부로 명부(명단)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말씀에 따라 재혼했다가 두 번째 남편까지 잃은 과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14절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재혼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9절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그러

므로 9절 하반절의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는 단순히 재혼 경험이 없는 과부를 명단에 올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남편과의 결혼생활 중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여자, 즉, 한 남편의 아내로서 신실한 결혼생활을 했던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설명하면, 마태복음 19:9과 마가복음 10:11-12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범하는 잘못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경우, 배우자가 죽은 경우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혼할 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와만! 재혼해야 한다. 성도와만 재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재혼했는데 두 번째 남편까지 잃은 과부는 당연히 참 과부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10절을 보면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를 과부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한다. 중요한 정보이다.

5장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 10절을 쉬운성경으로 다시 보자.

(딤펴 5:10, 쉬운)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여성)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잘)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잘)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 바쳐 일한 사람(여성)을 말합니다.(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구제 대상 명부에 오를 참 과부에게 요구되는 요건으로 그녀가 과거에 행한 여러 가지 선행의 발자취들을 가리킨다. 그녀는 과거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의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여성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들로 인해 아마도 소수의 과부만이 에베소교회의 참 과부로 등록되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았을 것이다.

이제 11-15절은 젊은 과부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한다.

5장11-12절: 11. (60세 이하) 젊은 과부는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다시) 시집 가고자(재혼 하고자) 함이니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 11절과 12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딤펴 5:11-12, 새번역) 11.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12.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의 복된 재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혼하는 것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젊은 과부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 과부 명단에 올릴 60세 이상의 과부는, 앞으로 재혼하지 않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서원하게 되는 특별한 과부들이기 때문이다. 12절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함을 논증한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게 되는 약속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큰 범죄가 된다는 바울의 입장이다. 이제 13절은 젊은 과부를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를 바울이 디모데에

게 설명한다. 그것은 젊은 과부들을 참 과부 명단에 올려 교회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면, 젊은 과부들에게 게으름이 몸에 배어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만들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젊은 과부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젊은 과부들을 참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논증한다.

5장13-15절: 13.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 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이는(젊은 과부는) 시집 가서(말씀을 따라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 15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담전 5:15, 새번역) 어떤 (젊은) 과부들은 이미 결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5장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 16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담전 5:16, 새번역) 어떤 (남신도나) 여신도(도와줄 경제력이 있는 신도)의 집안(친척 중)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남신도나) 여신도가 그들을 (직접)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락도 저(정요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17-25, 장로(감독)과 관련된 지침들

먼저 17-18절은 장로, 감독에 대한 존경과 물질적 지원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다. 역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다.

5장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 17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담전 5:17, 새번역)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목회자)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강조표시하자.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

5장18절上: (신명기 25:4) 성경에 일렸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씹우지 말라 하였고 또 (마태복음 10:10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

→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5장18절下: ... 또 (마태복음 10:10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셨)느니라**

→ 이처럼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풀타임 사역자인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임을 성경적으로 피력한다.

이제 19-21절은 장로, 감독에 대한 신중한 고발과 공평한 권징에 대한 교훈이다. 이 권징은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한다.

5장19-20절: 19. **장로에 대한 (성도의) 고발은 (매우 신중하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그러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이 범죄한 교역자들 세계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5장20-21절: 20. (그러나) **범죄한 자들(장로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교회 전체가)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 강조표시하자.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권징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21절 하반절 강조표시하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1절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보자.

(담전 5:21, 현대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 장로가 그대의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런 일은 엄정하게 처리하시오.

그 장로가 그대의 절친한 친구, 그리고, 목회자로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교역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죄한 지도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편애가 아닌, 공정과 공평한 자세로 판결하고 엄격하게 징계해야 함을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엄히!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도, 오늘날 범죄한 목회자에 대한 권징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노회 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제가 부교역자 때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 교회 청년들과 스캔들을 일으킨 목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 누구도 교회에서, 노회에서 면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회에서는 목사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편향된 모습을 노회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차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편애가 아닌, 공정과 공평한 자세로 징계할 때,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엄히 명령하고 있다.

이제 살펴볼 22절은 신중하고 바른, 장로 임직에 관한 당부의 내용이다. 장로 임직을 줄 때 매우 신중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장로 임직을 주어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22절의 안수는 장로 임직을 위한 안수를 가리킨다. 물론 안수집사임직, 권사 임직에도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직접적인 교훈은 장로 임직을 위한 안수를 가리킨다.

5장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 자격 요건들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급하게 안수하여 장로로, 감독으로 임직 시켰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안수한 자 역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바울의 명령은, 본서 3:1-13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임직을 받을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살펴볼 23절은 전후 문맥과 연관성이 없는 삽입구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일종의 의학적 처방에 관한 권면이다. 아마도 디모데는 민수기 6장의 율법을 따라 나실인 서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포도주를 일절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18:18을 보면 바울도 나실인 율법을 따라 나실인 서원을 한 적이 있었음을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고, 이를 염려한 바울은, 스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디모데의 노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권면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물만 마시는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무더운 이 지방의 물은 불결하고, 석회석과 병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문화가 발전되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당시 이런 물을 마시면, 위장을 상하게 만들고 배탈과 위장병을 일으켰다. 23절의 ‘자주 나는 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디모데 역시 자주 이런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5장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위장병)을 위하여는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24-25절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장로의 죄에 대하여 성급한 권징을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모든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도자의 죄를 드러내고, 그 지도자의 죄를 징계하고 권징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장로들의 죄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장로들의 죄가 있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감독의 죄에 대하여 성급한 권징을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해석이, 번역이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5장24절: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 24-25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담전 5:24-25, 새번역)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25.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이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악행이나 선행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에 반드시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24-25절을 통해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현 세상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숨겨진 죄, 은밀하게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다.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가 장로들의 그러한 죄를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판단하여 징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러한 숨겨진 죄,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배 목회자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한 주간동안 골방에서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디모데전서 5장

- 바울은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참 과부와 관련된 지침들을 제시한다.
- 목회자는 성도에게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 목회자는 젊은 여성도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한다.
-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구제해야 한다. 구제 사역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바울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논증한다.
- 말씀(진리)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여 전념하는 목회자를 더욱 존경하고, 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함을 바울은 성경적으로 피력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감독이) 범죄했을 경우 편애가 아닌 공정과 공평의 자세로 엄정하게 판결하고, 온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함을 명령한다.
- (딤후 5:20, 현대어) 그러나 만일 장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거든 온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시오. 그래야 아무도 그 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딤후 5:21, 현대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그 장로가 그대의 절친한 친구(동료)일지라도 그런 일(범죄)은 엄정하게 처리하시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성경의 자격 요건들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급하게 안수하여 장로로(감독으로) 임직 시켰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안수한 자 역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함을 명령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감독)의 ‘은밀하게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죄’ 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하여 징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러한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라고 권면한다.